

# 지역 대형 공공공사 '설계 잘못' 수백억 낭비

### 국토부, 익산국토청 감사...부적정 19건 적발 240억 감액·5천만원 회수·9명 징계 조치

광주·전남지역 대형 공공공사가 설계 잘못으로 수백억원에 달하는 예산낭비 요인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8일 국토해양부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2009년 이후 시행한 각종 사업의 예산 집행 및 도로·하천 공사 추

진과정에서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19건을 적발해 설계변경을 통해 240억4500만원을 감액하고 과다 지급된 5100만원은 회수하라고 조치했다. 또 업무 부주의와 소홀의 책임을 물어 3명은 경고, 6명은 주의 조치했다. 국토부는 탄기방식 대형공사의 경

우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해야 하는데 '홍농~백수 도로건설공사'는 아예 검토하지 않았고, '신지~고금 도로공사' 등 4건은 경제성 검토 결과 62억4400만원을 절감했지만 이를 아직까지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돌산~우두 도로건설공사' 등 29건에 반영된 환경관리비 14억2800만원과 연구개발비 25억1200만원은 앞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거나 불필요하게 공사비에 반영돼 이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이미 환경관리비를 집행한 '담양~순창 도로건설공사' 등 5건 5100만원

에 대해서는 회수하라고 시정조치했다. 지자체가 공사를 마친 교량 개축 사업도 버젓이 책정돼 있었다. 전북 진안군 서관교 개축 공사의 경우 지난 2009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진안군이 수해복구공사를 진행했는데도 익산국토청이 개축 공사비 3억3400만원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것이다. '압해~압대 도로건설공사' 등 13건에 반영된 비탈면 면고르기 설계비 11억1300만원은 지난 2008년 설계실무요령 개정으로 이같은 공종이 없어졌기 때문에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여수~순천 도로건설공사' 등 8건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장래 활용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보수비 16억8900만원을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하천재해예방 국고보조(국비 60%, 지방비 40%) 사업은 지방비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국비를 집행했다며 관련 공무원을 경고·주의 조치했다. 또 불합리하게 설계된 정음지구 농경지 구간 4개 보와 승주 우회도로 보강도 옹벽 구조를 설치계획은 재검토하라고 통보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서울우유 24일 가격 9.5% 인상

1ℓ 2150원→2370원

국내 최대 유업체인 서울우유가 오는 24일부터 우유 가격을 평균 9.5% 올리기로 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우유는 이날 대형 할인점과 슈퍼마켓 등 일선 매장에 오는 24일부터 흰우유 출고가 약 9.5% 인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경우 현재 1460원인 서울우유의 1ℓ 들이 흰우유 출고가는 1598원으로 오르게 된다. 서울우유는 애초 16일부터 우유값을 올리려고 했으나 우유값 인상이 물가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정부가 인상을 최대한 늦춰달라고 강력히 요청함에 따라 인상을 연기한 바 있다. 한 대형 할인점 관계자는 "오늘 서울우유로부터 24일부터 납품가를 올리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최종 소매가는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하게 될 것이지만 서울우유로부터 '소매가는 10% 내외로 올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선 소매점 가격은 각 유업체가 유업체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

는데, 10% 정도 인상할 경우 현재 이마트 등 대형 할인점에서 2천150원인 1ℓ 들이 흰우유 소매가는 2370원 안팎으로 오를 전망이다. 또 할인점보다 50원 정도 비싼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에서는 2200원인 가격이 2450원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우유가 이처럼 우유제품 가격을 올리기로 한 것은 지난 8월16일부터 낙농농가가 유업체에 납품하는 원유(原乳) 가격이 ℓ 당 138원 인상됐기 때문이다. 애초 서울우유 등 유업체는 원유가격 인상과 동시에 할인점 등에 납품하는 우유제품 가격을 올리려 했으나 우유값 인상이 소비자 물가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정부가 연말까지 우유값 인상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두 달 가까이 가격인상을 자제해왔다. 그러나 8월16일 원유값 인상 이후 일선 유업체에 누적인 적자가 300여 억원에 달하고 재무구조가 취약한 일부 유업체는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려워 집에 따라 업계의 맞춤형인 서울우유가 '총대'를 메고 가격인상에 나서게 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 주유소 업주도 카드수수료 시위

내일 1500명 쫓기대회 인하 촉구

신용카드 수수료를 내리는 문제를 놓고 카드사와 중소 자영업자가 갈등을 벌이는 가운데 주유소 업주들도 카드 수수료를 인하 등 생존권 사수를 위해 동진한다. 한국주유조합은 20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전국 주유소 사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쫓기대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협회는 전국 15개 지회에 공문을 보내 협회원들의 참석을 독려했으며, 1500여명의 업주가 집회에서 참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쫓기대회를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부담을 더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주유소 마진이 5~6% 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1.5%나 돼 대책이 필요하다"며 "카드사는 유통가격 상승 시 동반 상승하는 수수료로 이익을 보지만 주유소는 고유가에 따른 소비감소와 카드수수료 부담으로 경영난이 심해진다"고 주장했다. 주유업계는 그동안 매출액 대비 1.5% 정률로 적용되는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가 유통가격 인상에 따라 저절로 오르는 구조여서 기름값 상승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며 수수료 인하를 절박하게 요구했다. 협회는 수수료율 인하 외에도 '가짜석유 처벌 강화', '폐업주유소 철거

비용 지원', '농협주유소 혜택 폐지'를 구호로 내놓았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주유소 폭발 사고 등으로 문제가 된 가짜석유 유통을 근절하려고 정부가 과징금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한 대책을 내놨지만 가짜석유 판매를 뿌리 뽑으려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역 영세 주유소를 살리려면 면세 혜택 없애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쫓기대회는 고유가 시대에 정부의 이어진 압박, 비판적인 여론 등에 대응하려면 주유업계의 목소리를 한데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주유조합의 주도로 준비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내 기름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자 대안주유소 도입과 대형마트 주유소 확대 등의 정책을 내놓았고, 이에 협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반(反) 주유소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단체행동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과천 집회는 주유소 사장들의 첫 번째 단체실력행사가 되는 셈이다. 다만 정부가 정책 구상만 밝혔을 뿐 주유소의 영업에 지장을 주는 내용의 정책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집회의 목적을 '정부정책 철회'보다는 '생존권 사수'에 뒀다는 것이 이번 집회를 바라보는 업계 안팎의 시각이다. /연합뉴스



신용카드 살아 버리지

한국음식점중앙회가 '범의식인 10만인 결의대회'를 18일 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해 카드수수료 1.5% 이하 인하, 외국인 근로자 고용정책 개선 등을 촉구했다. 사진은 참가자들이 신용카드 모형물을 잘라 숲에 넣는 퍼포먼스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 현금수수료 최대 30%

카드대란후 최대

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수수료 수익이 2003년 카드대란 이후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은 최대 30%에 달해 급전이 필요한 시민들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전업 카드사들의 올해 상반기 현금서비스 수수료 수익은 6798억원에 달했다. 현금서비스 이용이 증가와 연휴가 많은 하반기에 더 많이 불리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현금서비스 수수료 수익이 1조 원 초반대는 무난하다는 게 각 카드사의 예상이다.

올해 상반기 현금서비스 수수료 수익만 해도 지난해 전부를 합친 7993억원에 육박할 정도다. 올해 현금서비스 수수료 수익이 1조원을 넘으면 2002년(2조8793억원) 이래 9년 만에 최대가 된다. 카드 현금서비스는 주변의 자동인출기(ATM)를 이용하면 되므로 시민들이 손쉽게 이용하는 대출 방법의 하나다. 그러나 2000년 초반에 현금서비스로 둘러막기 하는 사태가 극에 달하면서 2003년 카드 대란이 일어났다. 이후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수수료 수익은 2005년 4431억원, 2006년 6432억원, 2007년 5552억원, 2008년 7393억원, 2009년 6788억원으로 소비자의 현금서비스 이용이 주춤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금융당국이 시장 은행 등에 대출 규제가 심해짐에 따라 카드 현금서비스가 다시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한마디로 카드사들이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를 보는 셈이다. /연합뉴스

##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 새 지회장에 박병규씨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조 새 지회장에 박병규(47·사진) 후보가 당선됐다. 18일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실시한 제22대 기아차지부 광주지회장 선거 결산 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6522명 가운데 6249명이 투표에 참가해 이 중 3379표를 획득한 기호5번 박병규(현장연대) 후보가 1위를 차지했다. 기호3번 박창근(법민주연합연대) 후보는 2736표를 얻는데 그쳤다. 박 당선자는 진보신당 성향으로 강



경파로 알려져 있다. 박 당선자는 선거 과정에서 주한 2교대 완성과 기아-현대차 노조 통합, 2공장 설비 투자와 승용차종 유치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편, 기아차 지부장 선거는 지난 12일 실시한 제1차 투표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돼 전면 보류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쏘울, 북미서 박스카 판매 1위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생산하는 쏘울이 미국과 캐나다 시장에서 박스카의 원조인 닛산 큐브를 누르고 현지에서 부동의 박스카 판매 1위를 달리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 쏘울은 올해 들어 9월까지 미국에서 총 7만 8669대가 팔려 닛산 큐브(1만3652대)와 도요타 싸이언 xB(1만2974대)를 압도적인 차이로 제치고 박스카 판매 수위를 유지하고 있다. 쏘울은 지난 2009년 3월 북미 시장에 출시된 이후 미국에서 출시 첫해에 3만1621대의 판매고를 올리면서 닛산 큐브(2만1471대), 싸이언xB(2만5461대)를 누르고 박스카 판매 1위에 등극한 뒤 작년에도 6만7110대가 팔려 수위를 고수했다. 특히 올해 3월에는 1만288대가 팔리면서 처음으로 월 판매 1만대 돌파 기록을 세웠고 이어 7월까지 5개월 연속 판매 1만대를 넘어서면서 북미 시

장에서 기아차의 대표 차종으로 부상했다. 쏘울은 캐나다 시장에서도 큐브 등 경쟁 모델에 비해 압도적인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 쏘울은 지난 2009년(8489대)과 2010년(9857대) 두해 연속 박스카 판매 1위에 올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                   |
|-------------|-------------------|
| 코스피지수       | 1,838.90 (-26.28) |
| 코스닥지수       | 483.43 (-1.95)    |
| 금리 (국고채 3년) | 3.45% (-0.01)     |
| 원·달러 환율     | 1,145.60원 (+5.10) |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 “가맹점에 부당요구 카드사 거부권 부여”

정태근의원, 법안 발의키로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18일 신용카드 가맹점에 특정 카드사와의 거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이 마련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

합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단체는 카드사와 가맹점수수료 등 거래조건과 관련해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 유지하기 위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가맹점이 협상과정에서 부당한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특정 카드사가 발행하는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협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예약접수 중** **선배합격자가 말한다!** **개강: 11월1일**

2012년 공무원 시험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9급 공무원 시험 [국·영·수]** **최다 합격! 분명한 강좌! 최고의 시설!**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합격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려보십시오

**7급 중합반** **9급 중합반** **법원사기보** **7·9급 검정직** **영·수·영(전문)** **한빛고시학원** **전문부서관** **9급 야간반** **농업직/기술직** **사회복지직** **평문 강령면제**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http://www.hanbitgosi.co.kr) **광주 전남대 후문 북구청앞 (062)234-0234**